

## 4»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②



## 5» SW 중심대학 선정



## 8» 유기견 보호소 '꿈꿨네' 이야기



## 경희를 가득채운 봄

2월과 3월의 꽃샘추위가 지나가기 무섭게 꽃향기 가득한 봄이 성큼 다가와 캠퍼스 온 곳을 가득 채웠다. 아름다운 캠퍼스로 유명한 우리학교는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따뜻한 계절의 시작을 느끼게 했다. 학생들도 오늘 하루는 진행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친구들과 함께 꽃이 있는 모든 곳에서 봄이 머문 흔적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본관 앞에 학생들이 돛자리를 피고 모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일명 본관놀이라 불리는 문화는 매해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학교밖에도 유명세를 얻어 근래엔 우리학교 학생들이 아닌 다른 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국제캠퍼스도 봄에 춤추듯 반응하는 모습이다. 겨울에 황량했던 광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벤치 곳곳과 탑 아래에 자리한 학생들은 봄을 느꼈다. 사색의 광장은 그 넓은 규모에 걸맞게 좌우와 가운데에 벤치들이 위치해 있다. 평소라면 비어있을 공간들이지만 봄을 맞아 산책을 나온 가족들과 학생들이 가득 메웠다. (글=기호영 기자, 사진=이수형 기자)

# 청소노동자 직고용 위한 ‘소셜벤처’ 수면 위로

## 자회사 ‘소셜벤처’ 설립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4월 중, 서울캠퍼스 청소노동자 직고용을 위한 ‘소셜벤처’가 설립될 예정이다. ‘소셜벤처’는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하 자회사 형태로 확정됐다. ‘소셜벤처’ 설립까지 있었던 논의 과정과 그 구조에 대해 짚어봤다.

2015년 10월, 우리학교는 희망제작소가 개최한 ‘사다리포럼’에 참석해 청소노동자를 직고용하는 이른바 ‘경희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논의는 1년 넘게 진척되지 않았다. 청소노동자들은 용역회사 C&S 자산관리와 계약이 끝나가는 2016년 11월까지 학교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자, 12월 2일 총장실을 점거했다. 이후 12월 7일, 직고용 문제에 관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학교와 청소노동자는 고용안정을 위한 ‘소셜

벤처’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학교는 3월 3월 자회사 설립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월 27일에는 설립 기한 연장을 설명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용역업체 C&S자산관리와 계약이 끝나는 3월 30일까지 자회사를 설립하려 했지만 대학 본부 내의 많은 부서와 회의를 거치고,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3월 27일 간담회에서 정진영 대외협력부총장은 “5월에는 직고용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설립 기간이 연장된다고 청소노동자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학교에 수익을 남기는 일 없이 청소노동자들의 복지와 자회사 안정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가 설립하려는 ‘소셜벤처’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가 될 예정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라 학교는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보급·확산을 위해 ‘산학협력단’을 만들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출자하여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특허를 이용해 수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고 사업성을 띤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하고자 하는 ‘소셜벤처’는 이 마지막 단계인 ‘자회사’에 해당한다.

‘소셜벤처’가 이러한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된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은 시원한 대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 다만 정진영 대외협력부총장은 “학교는 법인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이전 논의 테이블에서 사무처 이성재 부처장은 “법인 산하 자회사 설립 시 재정과 인사절차상의 어려움이 우려돼 산학협력단 산하 자회사로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이나 ‘특허’가 있어야만 한다. 기술·특허를 기반으로 수익을 만들어 산학협력단 고유목적 사업과 연구활동에 사용하라는 것이 교육부가 자회사 설립을 허가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분 100% 소유한 기술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다.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대학의 특허를 이용해야 하므로 ‘소셜벤처’는 청소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할 예정이다. 홍충선 국제캠퍼스 산학협력단장은 “건물 외벽을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와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제품을 생각하고 있다”며 “자회사가 설립되면 청소노동자를 고용함과 동시에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소셜벤처’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에 총 3억 원을, 기술지주회

사는 ‘소셜벤처’ 자회사에 5,000만 원을 출자 했다. 서울캠퍼스의 청소노동자들이 직고용 되는 회사에 국제캠퍼스 산학협력단도 출자한 이유는 ‘소셜벤처’ 자회사가 청소노동자 고용을 위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이지만 학교가 청소노동자를 직고용했다고 볼 수 있다. 정 대외협력부총장은 “청소노동자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지금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회사의 대표는 지구사회봉사단 우기동 교수가 맡게 된다. 우 교수는 “청소노동자 분들이 경희대학교 직원으로서 일종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희대학교

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일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운명을 하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자회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대학이 우리 대학을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대외협력부총장 또한 “다른 학교랑 다르게, 더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청소노동자와 학교 구성원들이 다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들은 이러한 자회사의 설립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구성원의 합의나 서류상의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계속 설립이 연장되다가 결국 무산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공존하는 셈이다. 우리학교는 현재 누구도 걸었던 적 없는 길을 걷고 있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 진료확인서 위조 18명 적발, 정학처분 된다

## 상벌위원회 징계조치

이수형 기자 dltdf112@khu.ac.kr

지난학기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출석처리 받은 학생 18명이 적발돼 징계처분 받는다. 적발된 학생 18명은 뚜렷한 친분이나 연관 관계가 없는데도 위조경위가 제각각이라, 학생상벌위원회는 진료확인서 위조가 이미 학내 전반에 걸쳐 만연한 것이 아니지 주목하고 있다.

각각 다른 수업에서 위조 진료확인서를 사용한 이들은, 지나치게 잦

은 진료확인서 제출을 의심하던 교수들이 진료확인서를 대조해 적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된 진료확인서에 서명된 의사 이름은 같으나, 병원 이름이 제각각인 것을 보고 해당 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위조임이 드러났다고 상벌위원회는 밝혔다.

적발된 학생들은 위조 진료확인서 사용횟수에 따라 최소 근신+사회봉사 20시간에서 최고 유기정학 3개월에 달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상벌위원회는 “형법으로 따져도 사문서 위조, 위조된 문서 행사, 학교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다음 적

발부터는 징계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진료확인서 위조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각 행정실에 의료 관련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학생들은 ‘전배가 단체 채팅방에 뿌렸다’, ‘동기에게 위조문서를 건네받았다’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다른 대학 친구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위조문서 출처를 각각 다르게 지목했다. 실제로 진료확인서 양식을 판매하는 사이트까지 나타난 만큼 위조가 쉽

고 적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위조 진료확인서 사용이 학내에 악풍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정경대학에 다니는 A군은 “진료 후 병원에서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진료확인서를 줬. 다른 날짜를 기재해 사용한 적이 있다”며 “진료확인서 뿐만 아니라 생리공결 등을 남용해 출석을 경우는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쉽게 발견된다”고 말했다. 진료확인서 외에도 생리공결 남용 등 학생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속속들이 발견되는 만큼 주의가 당부된다.

##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플러스 ID : 경희대 학내신문 대학주보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시론

박근혜 같은 대통령을 다시 뽑지 않으려면  
채진원(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7면



다음 신문은 중간고사로 인해 4주 뒤인  
5월 15일에 발행됩니다.